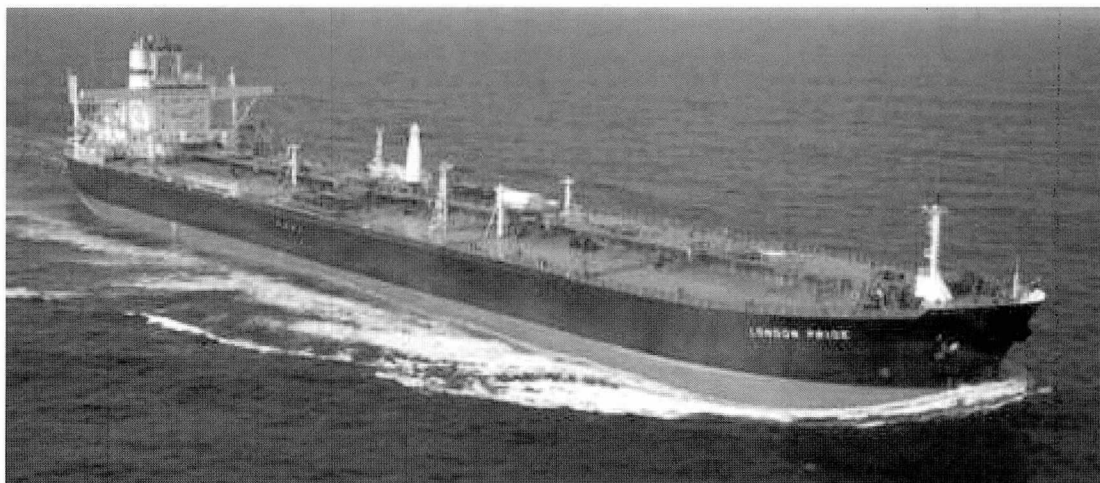




향후 5년간 수에즈막스유조선 수요증가 예상 아프리카의 석유 생산량 꾸준한 증가 등으로



세계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 상승으로 향후 5년간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런던의 선박시장조사기관인 Galbraith's가 전망했다.

이 기관은 최근 나이지리아 유전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감산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석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리비아, 알제리 등의 생산량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흑해, 지중해 지역의 석유수출 규모도 뚜렷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 수요 면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 상승과 현지 정유공장의 처리능력 개선으로 중동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석유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관은 또 북해 지역의 유전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유럽 지역의 정유공장들이

서아프리카와 지중해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 루트가 길어지는 만큼 유조선 운송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albraith's는 올해가 세계 조선산업의 절정기로, 대부분의 대형 조선소들은 이미 45억달러 이상의 유조선을 수주했으나, 상반기 중에 수에즈막스 발주량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는 선주들이 VLCC 및 아프리카막스급 발주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3분기부터는 수에즈막스 발주가 늘기 시작해 현재까지 대략 50척 가량이 발주됐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현재 전세계 조선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에즈막스의 수주잔량은 103척 가량으로 기존 선대의 29%를 점유한다며, 그들 중 상당수는 2008년 이후에나 인도되기 때문에 원유 운송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하에 수에즈막스 시황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